더불어민주당	보도자료	2022. 1. 13 (목)
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		
(문의) 02-784-9862		

현안대응 TF, 김건희 씨 수원여대 임용 당시 면접자 3명 확인

'공개 채용 아니다', '면접 본 적 없다' 며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 속여

○ **윤석열 측, 김건희 씨 채용 비리 의혹 감추려 시간 강사들 노력과 자존심 짓밟는 '아무말 대잔치' 허위 해명 일삼아**

○ **황운하 현안대응TF 단장, "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김건희 씨 상습사기 혐의 철저 수사 촉구, 감사원, 교육부 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 밝히고 상응하는 처벌해야"**

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(상임단장 김병기)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2007년도 1학기 수원여대 광고영상과 겸임교원 임용 당시 지원자 6명, 면접대상자는 3명이었으며 공개경쟁 결과, 김 씨가 최종 선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.

김건희(김명신) 수원여대 임용 시 지원자 현황(수원여대 공식 답변)

가. 지원자 수 : 6명

나. 면접대상자 수 : 3명

다. 공개채용 여부 : 공개채용

라. 최종 합격자 수 : 1명

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채용 논란에 대해 지난해 12월 15일, '시간강사는 공채가 아니고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' 라며 성실하게 연구하고 검증받아 강의하는 시간강사들을 모욕했다. 국민의힘 측은 또 '설명 자료' 를 통

해 공개채용이 아닌 교수 추천에 의한 위촉 채용이라며 거듭 허위사실을 유포했다.

특히 지난 5일 현안대응TF가 수원여대의 공식답변을 통해 '공개채용' 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, **국민의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"2007년 당시 김건희 대표는 교수 추천을 받아 이력서를 내고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다" 며 "경쟁이 있는 공개채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, 면접을 본 사실이 전혀 없다"** 는 노골적 허위 해명으로 국민을 속였다.

현안대응TF 황운하 공동단장은 **"윤석열 후보는 가족의 채용 비리 의혹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시간강사들의 노력과 자존심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허위, 거짓 해명을 끊임없이 살포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속여왔다"** 며 "윤석열 후보의 발언대로 김건희 씨를 내정했다면 명백한 채용 비리이며, 그간의 뻔뻔한 해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" 라며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다.

황 단장은 또 "윤 후보는 당시 최선을 다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에 임하는 등 엄연히 존재하는 직접 피해자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모욕한 것" 이라며, **"김 씨는 허위 이력을 이용해 대학의 급여를 편취한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, 이번 수원여대 사건 역시 상습사기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, 교육부, 감사원 등 감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"** 이라며 윤 후보 측이 국민 앞에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. /끝